



2016년 통일·북한 연구 최종보고서

코호트(cohort) 관점에 기초한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 연구

이인정 (통일교육원)

코호트(cohort) 관점에 기초한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 연구

이인정(통일교육원)

목 차

| | |
|---------------------------|----------------------|
| I. 들어가며 | IV. 특성화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략 |
| II. 코호트와 세대 이론의 탐색 | V. 나가며 |
| III. 코호트 관점에 따른 세대별 통일 인식 | |

[국문요약]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대, 베이비부머, 민주화 세대, X 세대, 그리고 디지털 세대 등이 지니고 있는 세대 가치에 대한 인식, 매체와 디지털 관련 인식, 사회적 관계 및 사회 구조 인식, 정치·국가 인식 속에는 일정한 코호트적 특성들이 존재했다. 또한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통일에 관한 인식, 통일정책 인식, 대북인식, 남북관계와 주변국인식 특성을 기초로, 연구에서는 코호트 관점에 따라 세대별 통일인식에 기초한 특성화 통일교육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통일교육 전략은 대략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로, 비교적 안정된 삶과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추세를 경험하며 자라났다. 이들은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배경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이슈를 일상에서 접했지만, 동시에 2006년 이후의 반복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도 동시에 경험한 세대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의 ‘민족 동질성’이나 ‘당위성’ 위주의 통일교육으로는 접근 방식이나 효과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으로 해당 교육과정 이 주는 시사점과 전략을 정리했다. 사회통일교육은 더욱 다양한 출생 코호트와 세대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각

출생 코호트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사·문화적 상황에 따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당위성’ 중심의 통일교육 담론을 넘어 새로운 지향점과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식·기술 역량, 행위 역량, 시민성, 통일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사회통일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령별 세대 구분은 각 세대의 통일인식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개념적 편리성이 있으나, 통일인식 제고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가족·대학·일터·지역사회로 구분해 ‘생활영역별 특성화 사회통일교육 전략’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전략을 정리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코호트 구분이 자칫 획일적인 이념형으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대 이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통일의식을 비롯한 다양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 간 뿐 아니라 세대 내 차이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세대 갈등만이 아니라 때로는 일부 세대 간에 가치의 연합이나 동맹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코호트, 세대, 세대 차이, 통일의식, 통일의지,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학교급 별 통일교육, 생활영역 별 통일교육

I.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각기 다른 역사적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대가 동시대에 같은 공간 내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양극화, 청년 취업과 실업 문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노인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맞물려 있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 경제적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견해들도 등장했다. 세대 문제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는 세대 간 경제적 분배의 불균형은 신뢰 저하,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적 좌절과 냉소, 행복감 하락,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사회적 및 정치의식에 있어서의 세대 차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¹⁾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세대 간 가치관과 태도의 격차는 어느 사회에든지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가 공존 가능한 임계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되지 못할 경우, 이슈에 따라 세대 간 격차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면서 갈등으로 변질 우려도 있다. 예를 들면 대북 정책 등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남남갈등’은 우리 국민 내부에 통일인식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북한 인식 현황은 세대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젊은 층인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기성세대와의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²⁾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코호트(cohort) 관점에 기초해 통일교육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코호트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인구 가운데 특정한 기간 동안 유의미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역사적 사건’을 비롯한 “경험을 공유하여 유사한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사회학적 의미로 자주 활용되는 ‘세대’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의식이나 행동에서 다른 시기에 출생한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의미한다.³⁾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대는 사회·정치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세대와는 차별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코호트나 세대 관련 연구들은 ‘출생 코호트’ 집단이 생애주기 단계,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사회화 및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의식과 태도 및 행위양식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일한 출생 코호트라 할지라도 청소년기에 역동적인 사회 변동을 경험한다면 여타 세대들과는 다른 세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정보화를 비롯해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대 특성이 더욱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즉 전후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청소년 세대와 장

1) 이호영·김희연·김석호·이윤석,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5-56, 2015 참조.

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인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6.

3) 이호영·조성은·오주현·김석호·이윤석,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2-12, 2012.

년 세대,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구분에 따라 주요 사회적 이슈, 가령 통일과 관련된 인식에 고유한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각 시기별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가 지니는 특성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 코호트별로 드러내는 통일인식 관련 특성을 조사하되,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시기 효과’로 구분해 그 특성과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출생 코호트 뿐 아니라 필요시 계층 변수나 직업별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통일교육 대상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방향과 주안점, 내용 요소 및 교수 전략과 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가운데 국내외의 코호트 및 세대 연구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분석함으로써 통일교육 대상자들의 세대와 코호트를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통일인식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는 통일의식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정리할 것이다. 특히 ‘통일준비세대(1981~1995년생)’로 불렸던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⁴⁾이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면서 통일교육에의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일인식 현황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로 통일인식의 높고 낮음이 어떤 요인이나 근거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해 각 세대별로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대상 통일인식 현황 조사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5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다. 이 조사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 관리자 등의 교원을 대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 중 일부 항목은 초·중·고 학생 간 응답에 있어서 특징적인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은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이 많았던 데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대체로 필요하다’의 응답이 가장 많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들 외에도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한 세대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도 디지털 세대, 즉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어떤 인식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⁵⁾ 이상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및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코호트 특성에 기초해 통일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각 대상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방향, 주안점, 내용 요소, 교수 전략과 기법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교육의 지향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며 우리 국민들 속

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인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5.

5)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김상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2011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자료집, 2011; 김유선·한귀영, 『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3. 09. 12; 박태정,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 연구』 제13권 제3호, 2013 등 참조.

에 존재하는 세대 간 역사적 경험과 인식의 차이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다양한 통일교육 연수 대상자의 특성에 보다 높은 적합성을 지니는 통일교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통일준비세대’에 대한 이해와 통일교육 전략 수립은 통일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통일 준비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II. 코호트와 세대 이론의 탐색

1. 코호트와 세대 개념 탐색

‘코호트’ 개념은 인구학, 역사학, 사회학 등 제 영역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우선 인구학에 있어서 ‘코호트’란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인구 가운데 특정한 기간 동안 유의미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⁶⁾ 특별히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는 “특정한 기간 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각 출생 코호트 구성원들은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한 정도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 양식 등의 ‘코호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학에 있어서 코호트나 세대 연구는 1960년대 이래 프랑스에서 집합적 심성 연구의 형태로 발전했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집합적 심성 연구는 세부적 편차보다는 “차이 저변에 깔린 심층적인 공통요소”에 주목한다. 집합적 심성이란 “전체 사회의 지적 공통분모”로서, “세대를 묶는 공유된 개념과 가치”로서의 ‘세대 의식’이나 ‘동류의식’에 주목한다.⁷⁾

사회학에 있어서 코호트는 ‘연령’이나 ‘세대’ 개념과 관련해 사용된다. ‘연령성층화 이론’에 따르면 각 출생 코호트는 생애 단계를 거치면서 연령에 따라 권리, 의무, 특전 등이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귀속지위로서의 ‘연령 계층’을 공유하게 된다.⁸⁾ 둘째, ‘세대’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공통점 뿐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⁹⁾이며, 출생, 재생산, 역사적 시대, 생애 단계, 인종, 새로운 존재의 출현 등의 의미를 포괄한다.¹⁰⁾

코호트와 세대 관련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 연령집단, 세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엄격한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¹¹⁾ 둘째, 방법론적 개념으

6) N. D. Glenn, *Cohort Analysis*, Sage Publications, 1977, p. 8.

7) A. Esler, "The Truest Community: Social Generations as Collective Mentalitie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2(Spring), 1984, p. 99; 103; 106.

8) M. W. Riley, M. Johnson, and A. Foner, *Aging and Society Vol. 3,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9) M. Rintala, "Generations: Political Generations"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6*, Macmillan & Free Press, 1974, pp. 92-96.

10) L. L. Nash, "Concepts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107, 1978, pp. 1-21.

11) 이에 따른 네 가지 분류는 ① 친족 계보적인 의미로의 세대 유사성 ②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로서의 ‘코호트’와 실질적 의미로서의 ‘세대’로 개념 구분하는 입장이 있다.¹²⁾ 셋째, 코호트와 세대를 밀접히 연관시켜 코호트 시각에서 ‘세대’를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본 연구자의 관점과 관련된다. 여기서 세대란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¹³⁾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변동과 세대 의식의 차이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만하임의 ‘사회역사적 세대’ 관점에 주목할 것이다. 사회역사적 세대는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해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지속적으로 지니며,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만일 일정한 ‘세대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동요과정의 사회적 지적 징후”에 노출되면서 “공동 운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이 형성되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던 잠재력이 ‘세대스타일’을 창출하고 ‘실질적 세대’로 형성·발전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세력이 될 수 있으며, 역사적 자극에 대한 상이한 반응 양식을 지닐 경우 더 많은 세대단위로 분화될 수 있다.¹⁴⁾

세대 차이를 초래하는 세대 의식의 다양성 형성은 ‘청소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하임은 경험 성층화 입장에서 어린 시절의 기층경험을 기초로 이후의 경험들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누적된다고 봤다. 이후 17세 전후의 청소년기에는 사물과 세계, 삶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 25세경에는 개인의 의식과 세계관이 안정화된다고 봤다. 즉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새로운 접촉’을 통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성세대 생애사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경험이 세대특성이나 세대차이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의식과 가치관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¹⁵⁾

세대 차이는 우선 연령이나 생애주기 단계의 차이(연령 효과), 코호트별로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화의 차이(코호트 효과), 특정 시기의 사건이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시기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동일한 출생 코호트 내에서도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의 내용과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가정환경, 인성, 심리적 자원도 영향을 미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 ③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④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이다. D. I.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983, pp. 126-127.

- 12) 이에 따르면 코호트는 “자료를 조직화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적으로 나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반면 세대는 다양한 출생 코호트들로 구성된 대상들이 동류의식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역사적 실재’다. 나아가 단순히 구조화된 생활경험의 차이를 넘어, 공유된 운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류의식, 세대 의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V. W. Marshall, "Generations, Age Groups and Cohorts: Conceptual Distinctions", *Canadian Journal on Aging* 2(2), 1983, pp. 52-53; 56.
- 13)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2001, p. 54; 박재홍,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제37집 3호, 2003, pp. 35-36.
- 14) K.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1928), pp. 298; 303-304; 309.
- 15)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pp. 58-60.

친다.¹⁶⁾ 특히 '계층 변수'에 따라 "생활 기회, 위험에의 노출, 기회에의 접근 가능성"이 규정되기 때문에 편차를 보일 수 있다.¹⁷⁾

이상을 정리하면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사회화 경험을 갖게 되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비슷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각 코호트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동적인 사회 변동의 내용에 따라 특유의 세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정보화를 비롯해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구성원 간 더욱 다양한 세대 특성이 발현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전후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청소년 세대와 장년 세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등에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통일·북한 관련 인식 또한 세대별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2. 코호트 관점에 따른 세대 연구 검토

세대 담론 유형 구분을 보면, 첫째, '계보학·친족적' 세대 담론은 이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보살피고 계도하는 사회화의 대상으로 본다. 둘째, '교육학적' 세대 담론은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진보를 위해 지식을 전수하는 '세대 학습'에 주목한다. 셋째, '사회문화·역사적' 세대 담론은 세대의 공통 경험을 강조하면서 '계급' 개념과 대비해 사용하기도 한다.¹⁸⁾

특히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욕구의 충족 여부에 주목하는 입장에 따르면 한 개인의 성장기에 겪은 물질적 풍요 여부가 가치선호에 큰 영향을 준다.¹⁹⁾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후 출생한 서구 세대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후기산업사회를 배경으로 가치선호의 변화를 드러냈다.²⁰⁾ 또한 고등교육 확대는 권위주의를 탈피해 자유로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면서, 환경, 평화, 반핵 등 '신사회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한다.²¹⁾ 개인은 비교적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는 '희소 가치 가설'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더라도 개인의 가치선호는 점진적으로 변

16) V. L. Bengtson, N. E. Cutler, D. J. Mangen, and V. W. Marshall,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VNR, 1985, p. 308.

17) I. Rosow, "What is a Cohort and Why?", *Human Development* 21, 1978, p. 73.

18)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10-11.

19) 조찬래 외, 『가치변화에 따른 투표행태: 1990년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2003, pp. 30-33.

20) 생리적 욕구 충족이 일차적 관심대상일 경우에는 신체적 안전,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물가 안정, 경제적 분배·복지 등 삶의 '조건' 측면인 '물질적 가치선호'가 확산된다. 반면 사회적·자기표현·심미적 욕구 충족이 관심대상일 경우에는 소속감, 존경, 참여, 언론 자유, 인권, 비핵, 환경, 교육 등 삶의 '질' 측면인 '탈물질주의적 가치선호' 증대 경향을 보인다. R. Inglehart, 정성호 역, 『조용한 혁명』, (서울: 종로서적), 1983, p. 42.

21) R.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 21-27.

화한다는 ‘사회화 가설’ 또한 주목할 때, 세대 공통의 ‘생활 주기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격 형성기인 청소년기의 경험에 따라 세대 간 가치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조찬래 외, 2003: 37-38).²²⁾

세대 분류 유형들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출생연도나 소속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우리나라의 연령 중심의 분류로는 ‘1318’과 같이 소속 연령에 따른 특성 구분²³⁾이 대표적이다. 출생연도 기준의 분류로서 미국의 퓨인터넷은 G. I. Generation(1936 이전), Silent Generation(1937~1945년), Older Boomers(1946~1954년), Younger Boomers(1955~1964년), Gen X(1965~1976년), Millennials(1977~1992년)으로 구분했다.²⁴⁾

출생연도 분류 중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관련이 깊으며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영·미의 베이비부머는 2차 대전 직후 인구 팽창기(1945~1963년)에 태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미국의 인권운동이나 영국의 케인즈 체제의 경제적 변혁을 경험한 세대다. 일본의 단카이(團塊) 세대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해 ‘회사형 인간’으로 살다가 장기 경제 불황과 퇴직을 겪은 세대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이다.²⁵⁾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세대 분류는 일반적으로 X, Y, Z, N 세대 등이 있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다뤄지거나 베이비붐 세대와의 차이를 드러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X세대는 “알려지지 않은 세대”의 의미로 등장해, 서구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나 소비문화와 멀티미디어 속에서 자유분방하고 감각적인 영상 세대로 불린다.²⁶⁾ X세대에 대비해 Y세대는 ‘Y2000세대’, ‘밀레니엄 세대’, ‘N세대(Net generation)’, ‘피터 팬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echo)세대’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Y세대는 1990년대 말 10대 후반의 신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22) 조찬래 외, 『가치변화에 따른 투표행태: 1990년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비교분석』, pp. 37-38.

23) 생애 연령을 기준으로 ‘1318세대’(Mouse & Hip Hop)는 PC 및 인터넷 의존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 세대다. ‘1925세대’(Mobile Phone & Fantasy)는 휴대폰 보유율과 자신의 표현 욕구가 높고 개방적이며 독특한 것을 추구한다. ‘2632세대’(My Car & Job)는 차에 대한 애착이 높고 긍정적인 미래관 가운데 재테크와 쇼핑에 관심이 많다. ‘3342세대’(Family & Career)는 자녀교육과 건강 및 노후 준비에 관심을 보이고, TV 뉴스와 신문을 즐겨 보며 역사적 의식과 정치적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4355세대’(Rice & Health)는 식사와 건강,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등산을 즐겨 하며 보수적인 사상이 특징이다.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27-29.

24) 미국 조사기관 ‘퓨인터넷’은 역사적 사건, 인구통계학적 변화, 달력상의 큰 전환 등으로 세대 명명의 기준을 삼고, G. I. Generation(1936 이전 출생), Silent Generation(1937-1945년 출생), Older Boomers(1946-1954년 출생), Younger Boomers(1955-1964년 출생), Gen X(1965-1976년 출생), Millennials(1977-1992년 출생) 등으로 구분해 세대 특성들을 정리했다. 이호영 외, 위의 책, pp. 36-39.

25) 박태정,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pp. 31-32.

26) X세대는 1950년대 초 매그넘 사진작가 카파가 2차 대전 이후의 젊은이를 담은 포토에세이의 제목에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출세·가족·돈 등에 관심이 없고 핵폭탄을 비롯한 공포나 종말론적 사고를 지닌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캐나다 작가 커플랜드의 소설 제목에 사용되면서 확산됐다. X세대 특성을 드러내는 PANTS는 개성화(personal), 즐거움을 추구하고 심각함을 기피(amusement), 자연에 대한 욕구(natural), 나이나 성등의 구분 거부(trans-border), 하이테크 등 서비스 추구(service)의 약자다.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 12.

적응력과 기술을 갖춘 정보화의 선도 계층이자, 기성세대에 비해 자기중심적 성향과 권위주의 거부 등을 특징으로 한다.²⁷⁾ Z세대는 미국에서 1998년 이후에 태어나 2000년대 유년기 동안 PC에서 스마트폰으로까지의 변동을 모두 경험한 첫 세대로서, 디지털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경기 후퇴기에 자라나면서 덜 이상주의적이고 더 실용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⁸⁾

N세대(Net Generation)는 미국에서 1977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서 인터넷을 일상생활의 동반자처럼 여기는 세대로, 오늘날에는 1977년에서 1997년 전후의 출생자들을 폭넓게 지칭한다. 이는 ‘디지털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로도 불리며, 다양한 세분화된 명칭들이 생겨나기도 했다.²⁹⁾ 다양한 디지털 세대 가치관 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디지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개인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디지털 세대는 호기심이 높고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다. 셋째, 디지털 세대는 학교나 직업 등 개인적인 문제에 비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고, 사회적 신뢰나 정부 신뢰 및 투표를 비롯한 사회참여가 낮은 편이다. 넷째,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외국인 또는 외국문물에 대한 개방의식 또한 높은 편이다. 디지털 세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흡수하는 일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서, 가족, 학교에서 주된 사회화를 경험한 이전 세대와 차이가 존재한다. 각 세대는 인터넷, SNS와 인스턴트 메시지, 디지털 오락 문화 이용률을 비롯해 세대 별로 사용하는 언어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신문, 라디오, TV 등 전통 미디어에 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는 세대 내 소통은 활성화하지만 세대 간 소통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³⁰⁾

3. 코호트별 한국 세대 이해

개인은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의 환경과 중요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가치관과 사고방식, 행동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시대에 살더라도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 간에는 성장기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동시대의 비동시대성’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기성세대는

27) 1993년 잡지 Advertising Age에서 향후 10년 간 10대가 될 세대들을 X세대와 구분해 사용했다. 미국의 Y세대는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고 ‘놀이’를 선호하며 종교적 회의주의, 나르시즘적 경향,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졌다. 피터팬 세대는 주거비용과 교육비용의 증가로 ‘성인’이 되는 것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경제력을 비롯한 여건을 성취할 때 얻어진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13-14.

28)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8-9.

29) “디지털 세상에 사는 사람(digital denizens)”을 세분화해 명명하는 연구들로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회피하는 ‘디지털은둔자(digital recluse)’, 마지못해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망명자(digital refugee)’, 기꺼이 기술을 사용하나 이에 친숙하지 않은 ‘디지털 이주민’, 다양한 일에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탐험가(digital explorer)’, 오래된 도구를 변형·적용시켜 새로운 도구를 창조하는 ‘디지털 혁신가(digital innovator)’, 기술에 의존적인 ‘디지털 중독자(digital addict)’ 등이 있다.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45-47.

30) 이호영 외, 위의 책, pp. 5; 39-40.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신세대는 서구적 가치를 지향한다거나, 고연령층은 물질주의에 머물러 있는 데 비해 젊은 층은 탈물질적 가치관을 갖기 쉽다는 식이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동시대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간의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 즉 세대 차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증적 세대 연구들은 비교적 ‘세대 차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 당시 대략 40세 이상의 기성세대는 보수적·권위주의적이며 고집이 세지만 근면·검소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희생적이라고 평가했다³¹⁾.

우리나라의 세대 연구는 연령 분류, 코호트 분류, 문화·행태적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령’ 기준 분류는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주목하는 입장으로서, 이념이나 상업적 차원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1020세대, 2030세대, 3040세대, 5060세대 등의 10년 단위 구분이나, 1315세대(중학생), 1318세대(중고등학생), 1618세대(고등학생), 1924세대(대학생) 등 학교급별 구분도 있으며, 청년세대, 대학생세대, 노년세대, 실버세대 등 생애 단계에 따른 구분도 있다. 둘째, 코호트 중심의 분류는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이론을 근거로, 출생연도에 따라 경험한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1955~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1960~1975년에 태어나 경제성장에 자라나고 민주화 운동 경험을 보유한 ‘386세대’, 1975~1984년에 태어난 ‘297세대’ 등이다. 반면 시대 특성을 중심으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탈냉전 세대’, ‘정보화 세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아가 출생연도와 역사적 경험을 결합해 ‘한국전쟁 세대’, ‘4.19 세대’, ‘유신 세대’, ‘IMF 세대’, 월드컵 세대인 ‘W세대’, 붉은 악마(red devils)의 ‘R세대’ 등도 있다. 셋째, 문화·행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는 ‘신세대’, ‘X세대’, ‘Y세대’, ‘N세대’, ‘디지털 세대’, ‘P세대’, ‘웹2.0세대’ 등으로, 기술적·상업적 측면에서 구분되기도 한다. 한국의 X세대는 일반적으로 1970년대에 출생해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세대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소비지향적 특징과 개인주의 경향을 지닌 ‘신세대’로 인식돼 왔다. Y세대는 1990년대 말 당시 13~20살 연령층을 지칭하는 언론 용어였으나, 이후 N세대나 디지털 세대 명칭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됐다.³²⁾

코호트 관점에 기초한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을 모색하려면 상기한 여러 구분을 종합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추출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통일의식 조사들이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인식 특성을 해석할 때는 출생연도와 역사적 경험을 주목하며,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문화적·행태적 특성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그리고 문화나 과학기술을 비롯해 각 시기가 중시하는 시기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세대를 논할 때 자주 활용되는 세대명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통일의식 약화와 관련해 젊은 세대 관련 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볼 것이다.

31)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사), 1990; 조혜선,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호영 외, 위의 책, pp. 3; 43-44.

32) 이호영 외, 위의 책, p. 3; 12; 42.

가. 산업화 세대

한국의 산업화 세대는 보통 1953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글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구별하기 위해 1954년까지의 출생자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들은 절대 빈곤의 경험을 토대로 성장제일주의가 중시되는 시대를 살아왔다. 또한 냉전의식과 흑백논리 가운데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학습했고 국가안보를 중시했다. 그리고 가부장제 등 유교 문화 속에서 나타나면서 집단주의, 권위주의,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해 왔으며, 여가보다 일을 중시하는 세대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 세대는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경험하면서 기존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세대다. 경제 발전으로 성장제일주의가 약화되고, 민주화 진전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해체되면서 집단주의·권위주의 가치관이 재평가됐으며, 탈냉전기에 흑백논리가 붕괴되고, 정보화 추세 속에서 획일주의가 탈피됐다. 더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과 실직 속에서 경제 활동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던 세대다.³³⁾

나. 전후 세대, 베이비부머

6.25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중첩된다³⁴⁾ 이들은 전쟁 이후 태어나 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시기에 나타나면서 '선성장 후복지'에 익숙하고 일과 자립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다. 이들은 1960년대 대가족 문화에서 출발해 1970년대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경험했다. 1970년대 공교육 대상 확대로 기초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을 모두 감당했던 세대다. 이들은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낯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로 불린다.³⁵⁾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외환위기 과정에서 일과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인구규모가 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노동력 감소와 사회복지비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 및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미생활과 자원봉사, 일정 규모의 소득창출 활동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³⁶⁾

다. 민주화 세대, 386 세대

민주화 세대는 일반적으로 1953년에서 1969년 사이의 출생자로서, 민주화 1세대와 2

33) 이호영 외, 위의 책, p. 17.

34) 미국(1946~1964년), 일본(1947~1949년), 영국(1946~1948년), 이탈리아(1946~1948년)와 달리,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 1968년에서 1974년까지 2차 베이비붐으로 구분한다.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한정하며, 2010년 통계청 기준 이 시기 출생인구는 약 712.5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35) 김상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p. 36; 박태정,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pp. 30-33; 41.

36) 박태정, 위의 글, p. 33; 36.

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민주화 1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유신세대, 긴급조치세대로도 불리며, 성장기의 극심한 빈곤, 산업화 시대의 경쟁의식이 내재해 있다. 반면 민주화 2세대는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자’, 즉 386세대³⁷⁾로 불리며,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이자 정치적 격동기인 19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며 민주화 운동 경험을 통해 비교적 동질적인 시각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³⁸⁾

민주화 2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율성과 개방성이 확대돼 가던 시대 상황으로 인해 탈권위성과 탈지역성 또한 지닌 세대로 평가된다. 이들은 2000년 4월 총선과 2002년 대선 등에서 정치개혁 세력으로 주목받았으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라는 관점과 기득권으로의 변질을 비판하는 관점도 있다.³⁹⁾

라. 297 세대, X세대

386 세대에 대응한 정치·사회적 세대명인 ‘297 세대’는 “20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자”를 뜻한다. 이들은 1970년대에 태어나, 88올림픽 및 교복 자율화를 비롯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학생운동이 퇴조하던 90년대 탈냉전기에 대학생활을 한 뒤 취업을 전후해 외환위기를 겪었다. 297 세대는 “자신과 자신의 느낌에 대해 당당하고 솔직하며, 취향이 분명하고, 개인적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좋은(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다양한 선택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X세대, ‘신세대’와 중첩된다.⁴⁰⁾

‘신세대’는 기성세대나 부모세대와의 구별 차원에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문화·행태적 측면에서는 주로 X세대 용어를 통해 이후 Y세대 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X세대의 범위는 세계적으로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970년대 생을 지칭한다. X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하면서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고, 논리보다 감성을 중시하며 소비지향적, 문화지향적인 세대로 지적돼 왔다. 즉 X세대는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세대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이자, “고가의 패션브랜드를 선호하는 성공한 20대”로도 불렸다.⁴¹⁾

37) 386세대는 1990년 중반의 드라마를 따서 ‘모래시계 세대’로 불리던 젊은 세대들이 1997년 대선 직후 386세대로 불렸다. 언론에서 제시된 386세대의 이미지는 “배낭, 컴퓨터, 돌멩이, 이념서적과 술, 립스틱, 비디오 카메라, 오렌지, 법전”(조선일보, 1999. 3) 등이다.

38)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임희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2.

39)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18; 21-22.

40) 동아일보사, 2004; 이호영 외, 위의 책, pp. 22-23.

41) 제일기획, 2003; 이호영 외, 위의 책, pp. 3; 12; 22-23.

마. Y세대, W세대, R세대, P세대

우리나라의 Y세대는 1990년 대 말 당시 13~20살 신세대 연령층을 지칭했고, 일부 연구들은 1990년대 출생자까지 포함했다. Y세대는 “개인주의와 개방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보화의 선도 계층이자 소비와 유행의 주역”으로 불렸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조직 내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적 욕구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부모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 타인으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신자유주의적 경쟁으로 일상화된 불안감을 지닌 세대로도 설명된다.⁴²⁾

Y세대는 2002년 한일월드컵 세대인 W세대,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Red devils)’의 R세대와 상통한다.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 속에서, 열정(passion)과 힘(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라는 의미에서 P세대로도 불린다. 세대 특성은 약칭 ‘자유정부’(자유화, 유목적성, 정보화, 부유함), ‘CHIEF’(Challenge, Human network, Individual, Experience, Fun/Feel) 등이 제시된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높은 디지털 적응력을 보이면서 N세대 및 디지털 세대와도 중첩됐다.⁴³⁾

바. 디지털 세대, N세대, 넷세대, 네트워크 세대, PC세대

정보화시대가 지나는 다양성과 탈획일화 경향은 세대명에도 드러난다. 1990년대 정보화 초기에는 기술·문화적 측면에서 PC세대, 넷세대, 네트워크 세대, N세대 등이 혼용되다가 이후 기술·사회학적 의미의 디지털 세대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정보화의 거시변동을 등에 업고 등장한 세대”로서, 이후 디지털 ‘1.0세대’와 ‘2.0세대’, 1975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등 다양화됐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태어나 디지털 문화와 사이버 세상 속에서 사회화된 세대(조성은 외, 2015: 82)다. 이들은 정보 신기술의 확산·활용에 적극적이며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⁴⁴⁾

디지털 세대에 대한 관점들 중 첫째, 기술세대로 바라보는 관점은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과 의미를 생산하는 문화적 주체이자 사회 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자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주체의식 없이도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뉴미디어를 접한 세대며, 단지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으로 세대 특성을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둘째, 인터넷 신세대들이 사이버세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는 관점은 우리나라 디지털 세대가 월드컵 길거리 응원과 선거 등 정치·사회

42) 이호영 외, 위의 책, pp. 3: 13-15.

43) 이호영 외, 위의 책, pp. 15-16: 42.

44) 김기환·윤상오·조주은, “디지털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 16권 제2호, 2009년 여름호, pp. 140-162; 이호영 외, 위의 책, pp. 19-21; 31; 44; 46.

적 이슈에서의 역할과 참여에 관심을 둔다. 정보화에 주목하는 세대 분류들은 인구학과 사회학적 요인을 절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세대 분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시대별로 경험한 주요한 사건과 연관한 세대 분류들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 ‘민주화·탈냉전세대(1964~1978년 출생)’, ‘디지털1.0세대(एको세대: 1979~1992년 출생)’, ‘디지털2.0세대(1993~2000년 출생)’ 등으로 구분하는 식이다.⁴⁵⁾

다양한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디지털 세대들의 특성들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화의 거시변동을 등에 업고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들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한 접속을 중시하고, 논리보다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로 불린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인간관계 확대를 배경으로 이모티콘 같은 새로운 언어와 자신들의 정체성이 담긴 사이버 자아와 문화 콘텐츠를 창조한다. 둘째, 소비 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은 경제적 풍요,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다원화 속에서 자라났다. 따라서 “필수적 소비 형태로부터 문화적 소비로 돌아선 시대에 성장한 최초의 세대”이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이자 생산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프로슈머로도 알려졌다. 셋째,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집단주의적·가부장적인 부모 세대와 달리, 이들은 핵가족화를 배경으로 자유와 개성, 수평적 인간관계와 탈권위적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이들은 개인적 권리나 학교 폭력, 입시제도 등 자신과 직결된 이슈에는 온라인 게시판 의견이나 온라인 정보공유에 참여한다. 반면 정부나 단체 등 사회적 신뢰가 낮고, 투표나 시민단체 참여 등 사회공동체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 한편 세계·국제적 이슈 관심이나 외국인 또는 외국문물에 대한 개방 의식은 높은 편이다.⁴⁶⁾

사.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분배정의의 쇠퇴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세대 간 경쟁 조건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경제적 세대 담론은 세대 내 경쟁이 아니라 ‘세대 간 경쟁’에 주목한다. 반면 세대 간 불평등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세대주의적 세대담론’은 실제로는 세대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 세대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하고, 특히 선거 국면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려한다.⁴⁷⁾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세대에 주목하는 용어는 일본의 ‘버블 세대’, 이탈리아의

45) 베이비붐 세대는 디지털 1.0 세대의 부모 세대이며, 민주화·탈냉전 세대는 386세대 일부와 탈냉전세대이고, 디지털 1.0세대는 월드컵 세대, 디지털 2.0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등의 특징을 지닌다. 조성은·이호영·손상영·이원태·강홍렬·한은영·김사혁·김희연·이시직·홍성욱·이종관·남영,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5-55, 2015, p. 85; 이호영 외, 위의 책, pp. 4; 44.

46) 이호영 외, 위의 책, 2012: 5-6; 19-20; 30-31.

47)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 10.

‘천 유로 세대’, 미국의 ‘빈털터리 세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진출 시기에 외환 위기를 겪었던 IMF 세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20대를 상징하는 ‘88만원 세대’ 등이 있다. 에렌베르의 심리사회학 명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경쟁 격화는 20대로 하여금 자기계발에 매진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 문제를 비롯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다.⁴⁸⁾

III. 코호트 관점에 따른 세대별 통일 인식

1. 코호트 관점에 따른 세대별 인식 비교

앞서 본 다양한 코호트와 세대 특성 관련 이론을 배경으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세대별 인식을 각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만하임과 박재홍의 입장에서처럼, 각 출생 코호트는 주로 청소년기 동안 경험했던 사회·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고유한 인식 특성을 보유할 수 있다. 각 코호트별 고유 경험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각 코호트별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연결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각 세대가 지니는 세대 인식, 기술적 인식, 사회적 인식, 정치적 인식 특성들을 실증적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할 것이다.

가. 세대 인식: 세대 가치에 관한 인식

여기서는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각 세대가 지니는 특성을 조사한 실증적 연구들을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첫째, 각 연령대별로 세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 세대 특성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한 결과로, 먼저 60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촌적 정서를 간직한 세대”이면서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냉전세대”로 인식했다. 50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한 세대”이자 “국가의 경제성장을 개인의 행복보다 중시”한다고 봤다. 40대는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중시하지만 사실 자신의 이권에 충실한 세대”에 이어, “눈앞의 이익보다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세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30대에 대해서는 “책이나 신문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본다”고 보고, “집단주의에 반대하고 개성을 중시한다”고 했다. 20대는 “윗세대에 비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세대이다”, “스펙쌓기를 중시하고 사회적 이슈에는 무관심하다”고 평가됐다.⁴⁹⁾

둘째, 항목에 따라 가장 관련이 깊은 세대를 지목하는 조사 결과로서,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세대’는 5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서였고, ‘경제발전에 기여

48)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24-25.

49) 이호영 외, 위의 책, pp. 68; 190-192

를 가장 많이 한 세대'는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세대'는 60대 이상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세대'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40대보다 20대를 더 진보적인 세대로 지목했다. 또한 '국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인식된 세대'는 40대인 반면, '국가의 세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60대 이상으로 인식됐다. '가족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세대'는 50대와 60대 이상인 반면, '가장 이기적인 세대'로 평가받는 세대는 20대였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는 30대,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세대'는 20대였다. 특히 '불운한 세대',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세대'는 2013년 조사에서 60대 이상이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20대였다.⁵⁰⁾

셋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10가지 사항(가족, 친구, 이웃, 일, 여가, 돈, 권력, 학력, 건강, 종교)'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 세대에서 평균적으로 '건강'과 '가족'을 중시했고, 이어 '돈', '일', '여가', '친구', '학력', '권력', '이웃', '종교'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차이가 드러나는 항목을 보면, 10대는 '친구'를 가장 중시하되, 50대나 60대 이상보다 '학력'을 더 중시했고, 세속적 가치로 여겨지는 '돈'과 '권력'을 고 연령층보다 더 중시했다. '여가'는 20대에서 특히 중시했고, 60대는 '이웃', '종교'를 중시했다.⁵¹⁾

넷째, '사회의 다양한 분야 10가지(국내 정치, 재테크, 경제 동향, 직업, 사회적 이슈, 건강, 교육, 문화 및 예술, 야외활동, 유행 및 패션)'에 대한 관심을 보면, 공통적으로 '건강(의료와 건강, 웰빙, 환경)', '직업(일자리)'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학습, 직업훈련)', '사회적 이슈(고령사회, 양극화, 여성문제 등)', '야외활동(여행, 레저, 스포츠)' 등의 순으로 관심을 가졌고, '문화예술(문화, 음악, 미술, 영화)', '재테크(주식, 부동산)', '유행 및 패션', '국내 정치(정당, 정치인, 선거)', '경제 동향'의 순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에 가까웠다. 세대별로 10대 청소년들은 '직업(일자리)'에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진 반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성인 세대들은 '경제 동향'에 관심이 있으며, 30대와 40대는 '재테크' 항목에 관심이 컸다.⁵²⁾

나. 기술적 인식: 매체와 디지털 관련 인식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을 지칭하는 '정보 격차'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 접근 수준은 높은 반면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부문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큰 편으로 알려진다. 인터넷 상에서 각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참여와 영향력은 적극적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 방관자,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화 수준과 활용도의 세대 격차는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 등에 차등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주적

50)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103-105.

51)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81-87; 145-146.

52) 이호영 외, 위의 책, pp. 88-90; 145-146.

격차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노년층에 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 획득, 문제해결 능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과 의미를 생산하는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다.⁵³⁾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즉 동질성과 배타성이 높은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나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이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았고, 특히 정치적 민주화, 언론자유 신장, 공적토론의 활성화, 지역감정 완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정보화의 여러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의 정보, 상품,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⁵⁴⁾

베이비붐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디지털1.0세대, 디지털2.0세대로 구분해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별로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대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 달기’, ‘채팅·메신저·인스턴트 메시징’, ‘게임하기’, ‘동영상 보기’, ‘음악 다운로드·스트리밍해서 듣기’ 활동이다. ‘관심 분야에 대한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진 게시하기’, ‘게임하기’는 격차가 매우 컸다.⁵⁵⁾

스마트폰 활용은 젊은 세대일수록 소셜미디어, 메시징, 여가활동(음악 듣기, 게임, 웹툰) 위주인 반면, 노년층은 자료 습득과 전화 통화 위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메시징, 이메일 사용, 포털 사이트앱(정보검색, 뉴스보기 및 인터넷 서핑 포함), 지도(위치정보, 교통정보, 길안내)앱은 세대 간 격차가 낮은 반면, SNS, 커뮤니티·블로그, 화상통화 앱은 격차가 컸다. 디지털2.0세대는 SNS 활용과 여가활동 관련 앱을 많이 사용하지만 언론사 뉴스 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디지털1.0세대는 커뮤니티·블로그 앱, 화상통화 앱, 경제활동 앱을, 민주화탈냉전 세대는 경제활동 앱을 주로 활용했다. SNS 관련해서 디지털2.0세대는 ‘페이스북’을 선호하며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반면, 민주화탈냉전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사적인 일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카카오토티’나 ‘밴드’를 선호한다. SNS 사용 목적은 저연령·고소득·고학력일수록 ‘친구/친지와 교류’를 위해, 저연령·저소득일수록 ‘사진 게시나 음악 공유’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⁵⁶⁾

53)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들로는 첫째, 정보화에 대한 관심 부족, 컴퓨터 사용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둘째, 빈곤 등의 이유로 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물질적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셋째, 사용자의 편리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운영 프로그램, 불충분한 교육,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사용 기회의 접근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호영 외, 위의 책, p. 171.

54) 조성은 외,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p. 11; 111.

55)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30-32.

56) 이호영 외, 위의 책, pp. 20; 35-36; 44-45;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2; 171-178.

다. 사회적 인식: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인식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의 조사 자료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인식은 부정적, 비관적으로 변하고 세대 차이 또한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관 및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으며, 시민단체, 군대, 언론, 노동조합,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정부, 노동조합,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정부, 정당, 국회의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10대가 가장 낮고 20대와 30대 역시 낮았으며 50대 이상에서 다소 높다. 사회적 신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낮았고, 집단별 신뢰는 가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외국인, 낯선 사람의 순이었다. ‘가족’ 신뢰는 세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세대에서 신뢰가 감소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신뢰도는 디지털2.0세대와 베이비붐세대가 다소 높고, ‘낯선 사람’ 즉 사회적 신뢰는 전반적 감소 추세로 특히 10대가 낮았으며, ‘외국인’ 신뢰는 증가 추세지만 10대에서는 낮았다. 대상별 친근감 조사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 사람’, ‘한국 국민’, ‘같은 시도 거주자들’, ‘아시아인’, ‘세계시민들’의 순이었으나, 세대별로는 10대와 30대가 낮고 40대 이상일수록 친근하다는 응답이 높았다.⁵⁷⁾

경제적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구조나 정책적 결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개인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보다 중시했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싫다’는 응답(51%)의 원인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서(50.6%), 공평하지 않아서(24.4%)’라고 응답했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소득격차(45.3%)와 일자리(30.9%)를 꼽았다.⁵⁸⁾ 통계청이 진행한 ‘2015 사회조사’에서도 “노력으로 지위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 응답(62.2%)이 긍정적 응답(21.8%)보다 많았고, “자식세대에서 계층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 응답(31.0%)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특히 디지털 세대들이 비관적이다. 미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와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젊은 세대가 특히 부정적인 반면, 베이비붐세대는 다소 낙관적이었다.⁵⁹⁾

이런 인식은 각 세대별로 노동시장이나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측면이 반영돼 있을 수 있다.⁶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인식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다. 최근으로 올수록 갈등의 심각성이 높아진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고령층과 젊은 층, 남자와 여자 간의

57)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93-106;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151-153; 조성은 외,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p. 111.

58) 신동아, 2015. 10. 24

59)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110; 145;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3-4; 134; 51-153; 조성은 외,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p. 109-111.

60) 김유선·한귀영, 『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p. 16.

같았었다. 반면 갈등 심각성이 감소한 것은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개발과 환경보존,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항목이었다.⁶¹⁾

라. 정치적 인식: 정치, 국가 인식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 매체, 인터넷 등 미디어가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지배적인 원천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뉴스가 사회 이슈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토론의 주제를 제공하면서 대중을 고양해 사회·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정치참여에 대한 전통적 미디어의 효과에 대해 매체부정주의의 관점은 대중매체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보도방식이 정치 불신을 야기하거나 정치체제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정치혐오감이나 냉소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추가비용 없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정치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하고, 조직 내부의 위계구조를 완화하고 평등한 정책결정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개인들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성원간의 집단정체성 형성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원 동원 능력을 향상시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행동의 역량과 전망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오프라인 정치에도 참여하게 되는 장기적 동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⁶²⁾

국내 연구들에서도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면서, 대중매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정보를 활발히 습득한 유권자들일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고, 정치 사이트 참여가 투표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치 정보 습득과 공유, 온라인 토론과 대화가 정치 참여 수준을 고양한다는 주장 등이다. 반면 정보화와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로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정보의 접근과 이용 가능성 증대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처리 가능한 정보 처리의 양과 인지 능력의 한계 속에서 과도한 정보는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키거나, 이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과 이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논쟁의 범위와 다양성, 주제의 심화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혜택을 더 많이 향유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정치 참여도 계층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⁶³⁾

결국 인터넷과 정치 참여 역시 세대와 계층을 비롯해 사회적 격차가 존재한다. 우선 인

61) 조성은 외,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pp. 110-111.

62)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 169.

63) 이호영 외, 위의 책, p. 170.

간은 ‘연령효과’ 혹은 ‘생애주기효과’가 작용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된다.⁶⁴⁾ 반면 한 개인은 청소년기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정치의식이 형성되고, 이것은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세대 효과’도 있다. 실증적 연구들에서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보수적 선택이 강해지는 ‘연령효과’가 나타나지만, 40대는 진보적 선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효과’가 강하다는 분석, 그리고 성장보다 복지를 강조하는 시각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⁶⁵⁾ 그리고 ‘한국 국민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약간 자랑스럽다’가 가장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세대와 민주화탈냉전세대는 국가자긍심이 낮은 편이며, 베이비붐세대의 국가자긍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⁶⁶⁾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세대 간 문화차이가 심해졌다’와 ‘지역감정이 심화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반면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었다’는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이 소외계층의 정치적 의사 전달, 공적 토론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인터넷 지식검색 결과 및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전 세대가 하락했고, 디지털 세대일수록 특히 낮았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정치적으로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증가시켰는가”에 대해서는 ‘현상유지’와 ‘다소 증가’ 응답이 많았다.⁶⁷⁾ 이는 인터넷이 사회적 관계의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동질화’를 초래한다는 의미가 된다. 인터넷 이용도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화 가능성 조사에서는 10대는 부정적인 반면 2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인터넷보다 SNS로 인한 정치적 대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즉 인터넷 이용도가 높거나 SNS 이용도가 높을 경우 주위 사람들과 선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연령과 정보화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⁶⁸⁾

정치적 효능감 중 ‘외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하여 확신하는 정도”를 뜻하고, ‘내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는 ‘내적 효능감’ 인식과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정부는 나 같은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외적 효능감’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정치효능감과 ‘인터넷 이용도’는 50대에서는 정적 관련이 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부적 관련이 있다. ‘인터넷 의존도’는 10대와 30대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신뢰도’는 30대 이하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을 증대한다. ‘인터넷 신뢰도’는 전 연령층, 30대 이하에서 기관 신뢰에 긍정적 영향

64) 김유선·한귀영, 『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p. 17.

65)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 211.

66) 이호영 외, 위의 책, p. 77;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109; 150-151.

67)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100-101; 114; 121; 125.

68)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pp. 227-228.

을 주지만, ‘SNS 이용도’는 정치효능감이나 기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⁶⁹⁾

2. 코호트별 통일 인식 특성

가. 통일에 관한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4.3%,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15년과 2008년에 이어 낮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특히 20~30대의 통일 인식이 취약하고, 50-60대와의 인식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16년 조사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감소해 48.6%이며, ‘남북 간의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증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전쟁위험 해소(28.4%)’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이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20.0%)’라는 응답을 합치면 절반에 가깝다. 30대 역시 ‘전쟁위험 해소(40.3)’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4.5%)’ 응답이 절반이 넘는데, 30대는 20대보다 전쟁에 대한 위협을 더욱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40대는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0대는 ‘이산가족 고통 해소’, 60대 이상은 ‘같은 민족이니까’를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20~30대의 젊은 세대는 통일의 당위성보다는 현실적 안보나 현실적 이익 등 ‘현실주의적 통일관’에 보다 주목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인도주의와 민족 정통성 등 전통적인 통일의 당위성에 보다 주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⁷⁰⁾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20년 이내’(25.1%)와 ‘불가능하다’(24.4%)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으며, 통일을 대체로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거나 부정적인 전망을 갖는 응답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빠른 통일을 기대하는 반면 연령이 적을수록 현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대는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 또한 높았다. 통일의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일수록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반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들은 남북 공존을 선호했다.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기대감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감소했으며, 특히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응답에 비해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일이 사회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며, 특히 20대는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투기, 범죄, 지역갈등, 이념갈등 전반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⁷¹⁾

지난 2015년 조사에서는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 경험을 기초로 ‘체제경쟁

69) 이호영 외, 위의 책, pp. 211-214; 223; 이호영 외,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pp. 111-112; 154.

7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의식조사』 pp. 15-17; 19.

7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위의 책, pp. 18-20; 22.

세대(1941~1960년생)', '민주화통일세대(1961~1970년생)', '탈냉전통일세대(1971~1980년생)', '통일준비세대(1981~1995년생)'로 구분해 통일 의식을 조사했던 바 있다. 통일의식 조사 결과, 체제경쟁세대와 민주화통일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탈냉전통일세대는 다소 낮고 통일준비세대가 가장 낮았다. 동 조사에서는 체제경쟁세대와 민주화통일세대의 통일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이 2014년의 '통일대박론'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세대는 고유한 청소년기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홍보,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게 한다.⁷²⁾

동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시기에 대한 인식을 연결해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으로 구분해 비교했다. 통일추진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통일소극형은 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유형과 ② 통일이 필요하나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일방임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젊은 세대인 통일준비세대는 통일방임형이 증가하는 반면 통일추진형은 급감했다. 탈냉전통일세대도 통일방임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통일추진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민주화 세대는 통일추진형이 다소 감소했지만 과반수를 넘으며, 체제경쟁세대는 통일추진형이 가장 높다. 세대별로 다양한 변수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보면, 체제경쟁세대는 성별 영향이 있고, 탈냉전세대와 민주화세대는 이념 변수에 관련이 있으며, 통일준비세대는 소득 변수에 영향을 드러냈다. '통일준비세대' 중 통일추진형은 성별 영향은 적었으나 고학력, 저소득층이 많았고, 통일방임형은 남성, 고소득층이, 그리고 통일소극형은 여성, 저학력, 중소득층(200~299만원)에서 우세했다. 다음으로 '탈냉전세대'의 통일추진형은 남성, 저소득층에서, 통일방임형은 여성, 고학력층에서 대표적이었다. '민주화세대'의 통일추진형은 남성, 고학력, 중소득이, 통일방임형은 고소득층에서 많았다. 마지막으로 '체제경쟁세대'의 통일추진형은 남성, 고학력층이, 통일소극형은 여성에서, 통일방임형은 고소득층에서 나타났다.⁷³⁾

나. 대북·통일정책 인식

2016년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세대 전반에서 하락하는 경향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에 이어 60대 이상에서 급락을 보였다. 대북정책 현안 관련해서는 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72) 김병조가 분류한 세대별 역사적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체제경쟁세대(1941~1960년생): 반공국시, 무장공비, 1.21사태, 7.4남북공동선언, 유신체제, 베트남패망 ② 민주화통일세대(1961~1970년생): 산업화, 민주화, 서울올림픽, 북한바로알기 ③ 탈냉전통일세대(1971~1980년생): 구소련 붕괴, 독일통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한이탈주민, 금강산관광 ④ 통일준비세대(1981~1995년생)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의식조사』, pp. 124-127.

7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위의 책, pp. 138-142.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도 절반 이하였으나,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⁷⁴⁾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으로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다수였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대북정책 만족층은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북한 개혁개방, 인권개선, 북핵중단 국제협력을 선호한 반면, 대북정책 불만족층은 적극적 통일정책, 자원 준비, 평화협정체결을 더 선호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특히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세대별 특징이 존재했다. 관련 분석에서는 체제경쟁세대는 통일 정책에 쉽게 공감하는 특성이 있으나, 민주화 세대는 상대적으로 비판적 경향이 있다. 그리고 탈냉전세대는 통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일대박론 공감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통일준비세대는 공감과 비공감으로 나뉜다.⁷⁵⁾

한편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 뿐 아니라 세대 내의 통일인식 격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조사 결과 세대 간 차이보다는 세대 내에서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면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 간보다는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즉 세대와 상관없이 통일추진형인 응답자는 탈북민을 더 친근하게 여기며, 이들이 남북 이질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탈북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데에로 이어진다. 따라서 통일인식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⁷⁶⁾

다. 대북인식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은 소폭 감소했다. 북한 핵에 대한 위협 인식이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3년 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다소 감소하고,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다소 증가했으며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대북신뢰도는 다소 증가했다. 반면 대북 인식이 세대, 지역, 계층, 정치성향, 도시화 등의 변수에 따라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 간 분화가 드러났다. 40대와 50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20대와 30대는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20대는 북한정권을 가장 불신하고 있으며, 30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우려했다.⁷⁷⁾

7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의식조사』 pp. 91-92.

7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의식조사』, pp. 91-96; 128.

7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위의 책, pp. 143-146.

7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의식조사』, p. 42.

전년도의 세대별 인식으로는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세대에서 북한 응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미국 응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세대별로 통일준비세대는 미국 응원이 높고 북한 응원은 급격히 낮아졌고,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세대는 과거에는 북한 응원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해 2013년 이후에는 체제경쟁세대와 비슷해졌다. 통일의식 유형에 따라 북한인식 또한 영향을 받는다. 체제경쟁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통일추진형은 북한을 협력대상과 지원 대상으로 인식한다. 반면 통일소극형은 협력·지원대상과 경계·적대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비슷하며, 통일방임형은 북한을 갈등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수다.⁷⁸⁾

라 남북관계와 주변국인식

남북한 관계 인식은 세대, 연령, 지역, 교육, 소득수준, 사회계층, 도시화, 정치성향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세대별로는 민주화세대와 탈냉전세대는 북한을 협력관계로 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협력 인식이 낮고 그 다음이 30대며, 적대인식은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감소하고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로 민주화세대는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편이다. 탈냉전세대는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해 왔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이어지면서 통일보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생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⁷⁹⁾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 2016년 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책임론은 감소한 반면 중국에게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했다.⁸⁰⁾ 세대별 분석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한미 간, 한중 간 협력의 중요성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세대효과와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 효과가 결합돼 있다. 먼저 세대별로는 민주화세대와 탈냉전세대는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통일준비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모든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대 내에서는 통일추진형일수록 남북관계를 가장 중시한다고 봤지만, 통일소극형과 통일방임형은 남북관계와 한미, 한중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⁸¹⁾

미국·일본·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5개 국가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점차 세대 편차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친밀한 국가로는 미국을 선택했으며, 특히 20대는 대미친밀도가 급증해서 60대 이상과 함께 가장 높았다. 과거에는 전 세대가 미국 다음으로 북한을 가깝게 여긴다고 응답했지만, 2015년 이후 탈냉전세대와 통일준비세대는 북한보다 중국을 더 가깝다고 여긴다고 응답

7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의식조사』, pp. 134-135; 142.

7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위의 책, pp. 43; 134-137.

8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의식조사』, p. 92.

8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의식조사』, p. 145.

했다. 그리고 그리고 전 세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선택하는 응답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과 중국의 순으로 응답됐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의 순서였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순서였고, 협조가 필요 없다는 순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의 순서였다.⁸²⁾

IV. 특성화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략

앞 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러내는 통일 인식 특성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세대별 특성에 기초한 통일교육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분류 방식은 특성화 통일교육의 현장 적합성과 실천적 측면을 고려해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것이다. 이 같은 구분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범주, 내용 요소는 공통적이지만 교육대상과 교육환경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데 따라 나눈 것이다.

먼저 학교통일교육은 지역을 비롯한 공간적 특성보다는 시간적 특성에 기초를 두며, 출생연도와 연령대에 기초해 학교급 별로 제시된 정규 교육과정에 기초를 두고 통일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은 통일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급 별로 세분화했다.

반면 사회통일교육은 일정 공간을 기준으로 학교통일교육에 비해 훨씬 다양한 연령이 공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처럼 일률적으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즉 사회통일교육 대상자들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령별 특성으로서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만이 아니라, 일정한 통일 관련 이슈를 바라보는 각 세대별 통일 인식의 차이로서의 시기 효과와 공간적·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지역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교육대상으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가 공존하는 생활영역의 경우 세대 구분을 병행해 제시할 것이다.

1. 학교급별 특성화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대상의 출생연도는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유치원 누리과정의 경우 대략 2011년 이후 출생자며, 초등학생은 2005년 이후, 중학생은 2002년 이후, 고등학생은 1999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입학해 있다. 학교통일교육 대상자들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기에 태어나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다문화 추세 속에서 자란 세대다. 이들 중 일부 세대는 어린 시절에 대북지원, 남북교류라는 이슈와 동시에 2006년 이후 거듭된 북한 핵실험과 도발을 경험했던 세대다.

이 같은 배경은 현재의 청소년 세대가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통일의 당위성을 기성세대

8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위의 책, pp. 110-111; 116-118; 136.

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대남 도발로 인해 북한은 자신의 안전이나 풍요로운 삶을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때로는 자극적인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한 세대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에 바탕을 둔 통일의지 형성이 더욱 중요한 세대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에 드러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⁸³⁾이며, 2015년 9월 23일 발표된 2015 개정교육과정⁸⁴⁾은 2018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기존 39개(2009 개정)였던 범교과학습 주제에서 10개 내외(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로 압축됐다. 따라서 향후 통일과 인간안보, 통일시대의 인성교육, 통일과 민주시민성, 북한 인권의 이해,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 통일비용과 편익의 이해, 통일 한반도의 환경 이해 등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개정교육과정은 「국어」 연극 단원 신설(초·중), 「연극」 과목 일반선택 개설(고), 독서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로는 ‘통일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 교과 신설(초 1~2, 주당 시수 1시간 증가, 총 64시간), 관련 교과에 ‘안전’ 관련 단원 신설(초 3~고3) 등을 감안한다면 안보와 통일교육을 접목하려는 노력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하 절에서 다루지는 학교급 별 특성화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략은 현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유치원 통일교육

유치원 대상인 만 3~5세(2011년~2013년 전후 출생자)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우선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며,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그 구성 방향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전인발달을 이루며,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심과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8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2012. 7. 9.)의 일부 개정 고시(제 2012 - 31호, 2012년 12월 13)에 따라 2013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전 교과으로 확대됐다.

84) 2015 개정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등이다.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 부문에 6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교과별 교과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을 시도했다는 것이 기존 2009 개정과의 차이점이다.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무엇보다도 만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해야 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유치원 통일교육의 구성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유치원 통일교육은 '사회관계 영역'에서 '사회에 관심 갖기' 범주 중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와 관련이 있다. 유치원 통일교육은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유치원 통일교육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현장학습을 통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의 마음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국가애, 민족애 및 통일외지 형성과의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유치원 통일교육의 내용은 남북한의 공통성 및 동질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으며, 명절 풍속이나 민속놀이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에 공유되고 있는 한복, 전통음식, 한옥과 같은 의식주 생활문화의 공통성, 우리말과 글이 드러나는 북한의 동요, 만화영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북한 주민 및 탈북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

유치원 통일교육의 방법은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체험 방식으로 편성하고, 유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유치원의 실내·외 환경을 흥미로운 통일교육 자료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치원 통일교육은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유치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 가능한 수업 기법 몇 가지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원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신체 활동과 감수성 중심으로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키는 정의적·행동적 영역의 수업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유치원 통일교육에서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 Ice-Breaking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다는 점에서 주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Spot(점, 장소, 현장, 짧은 즉석 삽입) 기법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나 문자 활동을 최소화하고 음악, 동영상, 사진, 만화, 동화자료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한 ICT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Photo standing 기법을 통해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주의 집중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자료는 유아들에게 익숙한 만두, 김치, 냉면 등 남북 공통의 전통음식 사진을 제시하거나 직접 만들고 먹어보기, 한복을 입은 어린이 사진을 통해 또래집단에 대한 흥미와 동질감을 유발하기, 동요 등 유아들에게 익숙하고 흥미로운 북한 영상 자료를 통해 같은 말과 글, 외모를 가진 관계임을 체득하기 등이 좋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원래 하나의 가족과 같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다는 분단 현실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족 동질성과 제시된 자료를 본 뒤 Brain-storming 기법을 가미해 유아들

이 느낀 느낌이나 생각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그림그리기,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유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존재할 경우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신체 표현 능력, 그리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

유치원 대상으로는 ‘박수치기’와 같이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 등 기본적인 단어를 한 글자씩 외치며 ‘엇박자 박수’를 비롯한 다양한 박수를 치거나, ‘서로 마주해 박수치기’ 등의 집단 활동으로 집중력을 높인 뒤, 이후 ‘우리민족’이나 ‘남북통일’ 등의 주제로 확장할 수 있다. 박수치기 활동은 도입단계에서 수업 주제를 안내하거나, 진행단계에서 집중력 유지, 마무리 단계에서 당일 배운 주요 학습 주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들에게 익숙한 방식인 놀이·게임이나 노래·율동 등의 체험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내의 다양한 통일 게임, 연령대별로 구성돼 있는 다양한 통일 노래, ‘김치퐁’ 인형극 영상이나 구름빵, 보로로 등 유아에게 적합한 동영상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남북 간 달라진 말과 단어를 알아보는 ‘날말맞추기 퍼즐 게임’,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율동하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나. 초등학교 통일교육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세대는 대략 2005년~2010년 출생자들이다. 이들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는 아동기로서, 부모나 뉴스 등을 통해 김정은 등 북한 정보를 접하는 세대다. 이들은 남북 교류·협력의 기억보다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 익숙한 세대다. 이로 인해 현재의 초등학교생들은 비교적 부정적인 대북 인식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뉴스로 인한 공포심과 거부감 또는 통일로 인한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를 품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⁸⁵⁾은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강화(통합단원구성)와 ‘영토교육 및 통일교육 강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삭제·경감하고 민주주의 관련 내용으로 적정화했고, 성·신분제도·인권 내용을 「지리」, 「일반사회」 영역과 통합했으며,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을 신설했다. 통일과 관련된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교과(1·2학년)인 「우리나라2」에서는 ‘남북 통일’과 관련해 ‘통일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남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통일 전시회 열기’ 등의 내용을 다룬다. 「도덕」과에서는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3·4학년)’,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5·6학년)’을 다룬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에서 주안점을 뒤야 할 부분이나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한 지향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개별 교과목 단위를 넘어 통합적 방식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고학년의 경우에도 단순히 지적 영역을 넘어 감수성과 행

85) ‘안전한 생활’ 교과 신설(초 1~2),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 신설(초 3부터)을 배경으로 안보와 통일교육 관련 체험활동을 접목해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한글교육 강화)와 「실과」에 ICT 활용 교육 단원을 포함하고 SW 기초 소양교육으로 내용을 개편했다.

동 실천에까지 이르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정의·행동 세 가지 영역을 고르게 고려하면서 인간 내면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인지적 측면의 통일교육

첫째, 초등학생들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awareness)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뜻하는 ‘지식’, 통일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관련된 올바른 ‘행동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 채택(perspective-taking)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 시각을 탈피해 객관성, 탈자아중심성 가운데 분단 현실을 바라보고, 나와 때로는 상충되는 타인의 입장을 듣고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일과 관련된 추론(reasoning) 능력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대북·통일 관련 이슈 속에서 다양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바람직한 판단과 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사결정(decision-making)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통일 관련 지식과 관점들 속에서 가치 탐구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능력이다.

(2) 정의적 측면의 통일교육

통일과 관련해 많은 지식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초등학생들의 통일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인지적 정보와 지식을 통일과 관련된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의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을 갖춰야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민감성은 분단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다양한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한 감수 능력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인격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불룸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적 영역의 목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감수에서 시작해,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로 발전한다. 이를 통일교육에 적용하면 개인은 다른 여러 이슈들 속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특정 내용을 변별적으로 감지해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개인은 통일 관련 내용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통일과 관련된 요소나 가치들을 자신의 내면에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로 채택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체계화·조직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은 일관성 있는 통일 관련 가치체계와 통일관을 수립하고 통일의지가 자신의 인격에 자리 잡게 된다.

셋째, 통일 문제에 대한 ‘인격 성숙’이 필요하다. 리코나가 분류한 도덕성의 정의적 요소

를 통일교육에 적용하면, 먼저 ‘성숙한 양심(conscience)’은 분단의 아픔과 폐해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통일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개발하게 되며, 통일을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전한 자아존중(self-respect)’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자존심(self-esteem)과 달리, 민족이나 국가, 사회 등의 공동체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empathy) 능력’은 역지사지(易地思之) 태도의 정서적 측면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의 내적·심리적 통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 행동적 측면의 통일교육

통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 통일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이 풍부하더라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역량이 필요하다. 우선 통일과 관련한 ‘실천 능력(competence)’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을 비롯한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 의지를 제고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통일 사회에서의 갈등이나 혼란을 비롯한 문제 사태를 예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 통일에 관련된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능력, 통일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감 가운데 타인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will)’는 불안, 염려, 부담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열정 가운데 통일을 이루려는 내적 정신력이자 굳은 마음가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역량의 습관(habit)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의 탈북 어린이나 주민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위의 습관화는 지식이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실천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4) 인지·정의·행동의 통합적 통일 수업

초등학교 통일 수업을 진행할 때 활용하기 적합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Spot 기법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잘못 지니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극복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수업 시작이나 진행 단계에서 간단한 통일 관련 퀴즈를 활용하면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Story-telling 기법은 초등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담화 형식으로 창작 혹은 가공된 통일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다양한 자료보다는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수자 자신의 경험담이나 긍정적·감동적인 통일·북한 일화를 활용하거나, 흥미 유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의 또래 어린이나 학교생활 이야기, 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Brain-storming 기법은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인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수업 주제와 관련해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분단되어 안 좋은 점 말하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말하기, 통일국가 미래 직업 말하기 등 분단의 폐해와 바람직한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미래상 관련 주제가 적절하다.

초등학교 통일 수업은 주로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도덕 교과 내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의 통합 뿐 아니라 교과 간 통합적 방식의 통일교육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수기, 동화, 동시 등 문학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음악 교과에서 또래 북한 어린이들의 공연장면이나 초등학교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함께 부른 통일 관련 노래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과 미술, 체육 교과를 연계해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언어나 문자, 마인드맵이나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볼 수 있다. 이 같은 통일교육은 초등학교생들의 우뇌를 자극하고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면서 통일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 중학교 통일교육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대는 대략 2002년~2004년 전후 출생자들이다. 이들은 아동기에 북한의 3대 세습과 반복적 도발, 핵 위협 등을 경험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됐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접한 세대다. 따라서 중학생 역시 민족 동질성이나 교류·협력 인식보다는 도발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적 북한 인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태로 학교통일교육을 접했지만, 사이버상의 다양한 북한 관련 자극적인 뉴스 등으로 인해 통일과 북한에 대해 인식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싹트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연령대다.

현행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중학교 내용체계는 ‘일반 수준’과 ‘심화 수준’으로 구분해 집중 이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통일 관련 교과로는 「도덕」, 「사회·지리」, 「역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도덕」은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사회·지리」에서는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을, 「역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광복,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분단과 6·25 전쟁의 전개, 1970년대 이후 평화 통일 노력과 북한의 실상’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중학교의 통일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통일교육 접근

질풍노도의 시기로 알려진 청소년기, 그 중에서도 중학교 단계의 통일교육은 교과교육 뿐 아니라 범교과주제 차원에서 평화적 갈등 해결교육 등의 접근을 적용해볼 수 있다. 평

화의 가치를 교육에 적용하는 논의는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해 오늘날은 다양한 교과목에 평화교육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과 타인, 공동체 및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지녀야 할 다양한 평화 관련 역량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연계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평화교육적 접근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존중 의식, 자율성, 책임감, 열린 대화, 이해, 신뢰, 반성, 용서 등의 가치에 주목한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의 선과 공동선의 조화로운 추구, 관용, 참여, 연대, 비판, 저항 등의 가치와 연계된다. 이런 점에서 교과 수업을 넘어 자기주도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과 나라사랑교육에까지 외연이 확대될 수 있다. 관련 가능한 주제로는 분단 시기의 국제관계, 핵무기의 위험성,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 탈북민과의 소통과 협력 등이 있다.

(2) 자기주도적 통일 탐구 활동

중학교 단계는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로, 개인적 탐구와 협동 학습 방식의 탐구 등 다양한 형식으로 통일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Brain-storming은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자유 활동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가 보고 싶은 수학여행지 말하기”, “북한에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 말하기” 등이나, 혹은 “통일 포어 짓기”, “통일 노래 개사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말하기”와 같이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두뇌를 사용하는 집단사고가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 속담, 격언, 명언, 일화 등을 활용하거나 통일 관련 카피, Metaphor나 은유를 창작해 내는 과정에서 중학생들로 하여금 이성과 감정 지능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남북한의 비슷한 점·다른 점(설화, 노래, 속담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조사해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서로 퀴즈대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중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통일 교육 활동은 ‘협동학습’ 방식의 탐구 활동에 기초를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학생이 지닌 북한·통일 관련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경우 이를 집단 활동의 형태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면 NIE 활동은 통일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된 사설, 기사, 사진, 시사만화, 광고 등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자신들의 신문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북한 주민의 생활 문화 조사하기’나 ‘북한의 중학교 생활 알아보기’ 등의 북한 이해 관련 학습을 할 수 있고, 남북한의 통일 관련 교류협력 사례들을 모아 기사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이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을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 및 탐구능력 향상, 남북한 사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논리성과 비판력 증진, 분단을 비롯한 남북 간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 배양, 통일 관련 정보 및 자료의 활용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 2009 교육과정과 달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욱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를 비롯해 자신의 미래의 삶에 관심이 생겨나는 중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통일·북한 관련 '상상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만약 남북한이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지금과 다를까?", "만약 남북한이 현재 통일국가라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 보고 싶은가?", "만약 남북한이 현재 통일국가라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등이다.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이미지 형상이 가능하도록 질문과 관련된 시각적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라. 고등학교 통일교육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세대는 대략 1999년~2001년 전후 출생자들이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남북 교류협력의 기억을 지니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제재, 세습 체제와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기억 역시 공존한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증가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북한 실상 증언을 접했고,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도 인식하는 세대다. 더불어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외국관광객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민족공동체 관련 인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취약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 진학과 진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 고등학생에게 의미 있는 문제가 되려면 자신의 삶을 통일미래 비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비용 및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은 학교까지 통일교육을 주로 담당했던 「도덕」 교과가 폐지된 이후 다양한 선택과목의 형태로 분리되면서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입지는 점차 약화됐다. 현행 2009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통일 교육 관련 선택 교과로 「생활과 윤리」에서는 '평화와 윤리' 내에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내용을 다룬다. 「윤리와 사상」에서는 '사회 사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함의'를 통해 남북한을 비교한다. 「한국지리」의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영역에서는 '국토 통일의 당위성'을, 「한국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영역에서는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참상과 영향, 북한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 노력'을 배운다. 그 외에도 「국제정치」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 정치' 내에 '한반도 통일과 국제 정치의 역할'을 다루며, 「국제경제」에서는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 내에서 '남북한 경제 교류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공통과목(신설)과 선택과목으로 구성하고, 「통합사회」 과목 신설, 「여행 지리」, 「사회 문제 탐구」 등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기존의 「법과 정치」 교과를 「정치와 법」으로 과목명을 변경했고, 국제 관계에 한반도의 국제 질서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통일과 관련된 공통·선택과목을 통해 통일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증가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

등학교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이 필요해졌다. 또한 각 고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 내 초·중·고 및 대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열린 통일교육

10대 중후반은 자아정체성이 형성·확립돼 나가면서 사회구조를 비롯해 국가와 이념적 마인드가 생겨나는 시기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는 국가·민족정체성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일 교육의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적절한 시기다. 분단이 길어지면서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분리되고, 여기에 다문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약화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글로벌 시대는 순혈주의나 배타주의가 아닌 확장된 의미로서의 민족 개념과 열린 민족주의 관점의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국가·민족정체성과 통일교육은 교육과정상 영역 성취기준이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으로 동일하다. 해당 영역은 “자신과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니며,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나라 사랑 및 타 국가 존중, 국제평화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해당 영역은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동일한 체계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국가·민족 정체성과 통일교육의 연계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독립 교과내용 요소가 약화된 통일교육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교과 이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니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시각 역시 국가·민족정체성과 통일교육의 연계에 적합성을 제공한다.

(2) 교과 외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모형의 발전적 모색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통일 관련 교과 내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교과 외 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통일 수업 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신설한 「연극」 교과를 비롯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역할놀이나 시뮬레이션(모의) 수업모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역할놀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모형은 언어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인과관계를 탐색하도록 한다. 따라서 민족의 분단의 결과로 드러나는 여러 폐해, 분단 극복과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이나 통일 편익을 탐색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로의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의 결과에 대해 탐색하면서, 최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하고 타인에 설득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의 내적·심리적 통합 준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가치분석 수업모형은 갈등의 발생이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 관련성, 타당성, 특정 가치기준의 해석과 판단에 내포된 가치원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가치판단과 사실적 증거를 찾고자 시도하는 활동은 대북·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남남갈등 속에서 다뤄지는 핵심적 가치를 살펴보게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 극복과 관용이 요청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새 사례 검사, 포함관계 검사, 역할교환 검사, 보편적 결과 검사와 같은 가치 원리의 검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에 사용된 가치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치갈등 해결 수업모형은 ‘법리적 탐구모형’에 근거한 시민교육 모형이다. 이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상충하는 두 개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려는 모형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민족정체성과 민족의식,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자 안보의 대상이라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주권국가이자 분단 상황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서의 남북 관계 등 민족이나 통일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토론 수업모형은 교실에서의 도덕 딜레마 토론을 통한 접근으로, 일문일답식, 소집단 토론식, 찬반 대립 토론 등 다양하다. 판단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얕’에 있어서의 인지적 불균형, 즉 보다 높은 판단의 단계와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분단으로 인해 남북 간 달라진 점을 찾고 이를 포용하기 위한 방법 토론하기, 북한 체제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하기, 탈북 학생과의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토론,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할 수 있다.

(3) 집단 활동을 통한 긍정적 통일 미래상 제고

고등학교 단계의 통일교육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액션 러닝 방식이나 협동학습, 자기주도적 통일 문제 탐구 활동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시작 질문, 반응 질문, 촉구 질문 등을 통해 학생들을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과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질문 기법들로는 ONP 질문, 즉 Open(개방적), Neutral(중립적), Possibility Searching(문제 해결) 질문을 들 수 있다. 질문 시에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자료나 힌트를 준비해 자신감과 흥미를 증진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는 인생관과 국가관이 형성되는 단계로서, 통일 문제를 자기 자신과 연결 지어 바라볼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VAVA Game은 Visual

(가시화), Affirm(긍정문), Verbal(언어화), Assume(역할 담당)을 통한 마음 속 훈련 기법으로서, 긍정적인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 자부심, 미래의 자신 등을 통한 자기 동기화를 시도한다. 예시로는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자신이 꿈꾸는 이미지 상상해보기, 통일 한국에서 나의 역할 상상하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수업 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이 학생들의 현실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인 metaphor나 은유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이를 자신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의 시작 단계와 마무리 단계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Key Learning 활동은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경험과 성찰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지닌다. 교사는 학생들이 단순한 Review를 넘어 Re-visit, 즉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배운 점과 도움이 된 점, 좋은 점을 성찰한 뒤 문장으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방식으로는 포스트잇 또는 색종이에 자신의 성찰 사항을 적는 시간을 가진 뒤 이것을 집단별로 이야기하거나 벽에 게시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성찰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액션 플랜을 수립해 성찰한 내용이 실천되도록 이끌 수 있다.

2. 평생교육 차원의 생활영역별 통일교육

가.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통일교육 체계 구축

6.25를 비롯해 반세기 동안이나 반복돼 온 북한의 도발, 특히 최근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북한과의 이질감을 증가시키면서 남북의 대화와 교류, 그리고 통일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분단 현실은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생 동안 모든 공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정규 학교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들은 분단의 폐해를 청소년 세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성인 대상의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성인 대상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접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남북 분단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처음부터 남북은 분단 상태였다고 인식하는 세대가 하나의 민족이었던 기억을 가진 세대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각 세대들은 각기 자신이 자라오면서 경험한 북한의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고연령층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나 통일의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이질적 감정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 시대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 세대는 자신의 취업과 진로를 넘어선 거시적인 국가·민족 담론이 피부에 와 닿기 쉽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통일 한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세대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당위성' 중심의 통일교육 담론이 지니는 한계를 인정하고, 통일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지향점과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평생교육의 체계를 원용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기본 입장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는 학교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대, 세대,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은 기존의 이념적이고 적대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세대가 각기 다른 양상과 정도로 지니고 있는 분단의 상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시민적 역량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지식·기술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사회통일교육

바람직한 사회통일교육은 모든 세대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평생교육에서 추구하는 '알기 위한 학습'이란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학습자들은 북한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자기 주도적으로 함양할 수 있으며, 사회통일교육은 이를 목표로 구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은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는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이 기본적인 언어, 문자,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인 동시에, 핵·미사일, 선군체제, 세습체제, 인권문제 등 체제와 관련된 사항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북한 체제는 대내외적 사회 변동과 세대교체를 통해 장마당과 학제 등 변화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결코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행위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사회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은 각 개인이 통일을 위해 어떤 행위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통일로 인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도와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통일 이후의 사회가 직면하게 될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변화를 알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일교육은 탈북민 정착 지원, 국민들의 통일 의

지 결집,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생 학습도시’처럼 지역 통일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일 평생교육 체계가 활성화되면 현재 30,000명을 넘어선 국내 입국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일교육 역시 더욱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눈높이와 문제의식에 입각한 지역사회 주도적 통일교육은 주민들의 통일 의지와 통일 준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며 지역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기관이나 시설 중심의 교육을 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사회의 대학 등이 협력해 민·관·학 연계 온·오프라인 통일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

(3)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사회통일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일교육은 통일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오랜 분단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과정이다. 더욱이 6.25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남북 간 갈등 뿐 아니라 남한 내부의 이념적 갈등으로도 확대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일교육은 각 세대, 지역, 계층별로 다양한 대북·통일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통일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통일교육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 정도의 차이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민주시민 관련 교육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장년 세대 간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시대와 계층, 지역에 따라 서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해,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통일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사회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의 과제 중 하나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혹은 거부감과 부담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비용과 편익이나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개인 각자에게 통일이 기대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을 사회통일교육에 접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예술교육은 건전한 자아 관념과 예술적 감수성 및 공감대를 증진하면서 편견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그리고 나와는 다른 이념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개방적 자세를 지니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민족 전통예술을 통한 공감대의 확산은 남북한 주민 간 마음의 벽을 약화시키고 민족동질성의 회복 및 공동체의식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통일된 한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역사나 문학 및 철학 등의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역시 한 개인의 자아 형성과 자아실현, 전인적인 성품을 완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이질화되고 있는 남북의 문학과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생활영역별 특성화 통일교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은 각 세대나 계층, 지역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성인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증대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통일 인식 조사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세대가 살아온 역사·사회적 배경, 특히 가치 선호를 서열화하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 시기의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는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연령별 세대 구분은 많은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로 통일 인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같은 일부 세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각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흩어져 자신의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 사회통일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면 연령대를 통한 세대 구분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범주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사회통일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 가운데, 각 성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생활영역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가족 공동체 단위의 대화를 통한 통일교육

가족이라는 집단은 모든 개인이 생애주기 속에서 누구나 거치게 되는 기본적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회집단의 기초이자 가장 많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된 집단으로서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할 것이다. 가족 공동체 단위의 통일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이전의 영유아로부터,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전업주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로 생각돼 온 노인 계층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다. 가족 공동체 단위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 관련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단위의 ‘대화학습’ 형태의 통일교육이다. ‘대화’는 각 개인이 지닌 가치나 진솔한 이야기를 공동체의 가치와 이야기로 만드는 행위⁸⁶⁾로서,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학습은 그 자체로 통일 대화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

분이 없이 각자가 자신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부부 간, 형제자매 간 각자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통일 관련 뉴스, 신문, 영화, 인물 등을 접한 뒤, 이것을 대화 공동체에서 공론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통일 이야기를 공동의 관심사가 되도록 이끄는 과정에서 통일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통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통일 문제는 서로에게 공유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비폭력 대화’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가능하다. 비폭력 대화 모델은 주로 간디 등의 비폭력주의나 2차 대전 때 유대인 희생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관찰-느낌-욕구-부탁’의 4 단계로 구성된다.⁸⁷⁾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한 뒤,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그 느낌을 자신의 ‘욕구’와 연결시킨 뒤 자신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뉴스나 신문 등에서 북한의 행태나 통일정책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선입견을 갖기 전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또한 이 모델은 탈북민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하브루타(Havruta)’ 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는 유대인의 전통교육 방법으로서, 가장 높은 학습 효율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다.⁸⁸⁾ 또한 하브루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토론이나 논쟁 방식으로 활용된다. 상대방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 개인은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을 증진하게 되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족을 비롯한 소규모의 대화 공동체 뿐 아니라 대규모의 집단에서도 질문 중심의 토론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기도 한다.

(2) 대학생 대상의 열린 통일교육

지금의 대학생 세대는 대략 199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출생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고한 탈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였던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태어난 탈이념적 세대다.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탈북민의 북한 실상 증언과 북한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북한 이슈를 통해 남북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를 뚜렷이 인식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더욱이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통일 비용과 사회적 혼란의 정보를 접하면서,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가져올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세대다.

한편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민족 개념을 초월하는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성장했다. 동시에 이들은 서해 도발이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다양

86) 김종문, 『도덕교육을 위한 학생활동 중심의 대화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2013, p. 138.

87) 이은아·박상복, “Rosenberg의 비폭력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배척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10권 1호,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07, p. 34.

88) 전성수, “질문이 있는 수업, 하브루타”, 『서울교육』 제56권 제3호 통권216호, 2014, p. 20.

한 북한의 대남 도발 이슈에 노출되면서 자라온 세대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보다는 우리의 안보적·경제적 이익에 부담을 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쉬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 간 활발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한 기억을 일부 가지고 있는 세대지만, 2006년 이후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은 교류·협력의 효과나 민족 동질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세습체제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역시 북한 체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질감과 거부감을 증대하는 근거들이 됐다.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스포츠·한류 등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속에서 취업난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측면의 비관적인 의식을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북경올림픽을 비롯해 중국의 군사·경제적 발전을 목도했고, 주변국을 비롯한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잡성과 함께 통일의 당위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자주 표현하는 세대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기성세대에서처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를 동반자로 생각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생각되기 쉽다.

이런 면에서 대학생 통일교육은 통일이 국가와 자기 자신을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이고 ‘열린’ 방식이 요청된다. 기존과 같이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념교육이나 북한·통일교육은 자칫 왜곡된 이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이념에 대한 그릇된 호기심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 단계의 통일교육은 자발적인 탐구 방식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이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더 큰 꿈을 실현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배경 가운데 대학생 단계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교육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을 뒤집는다는 의미로, 전통적인 수업의 순서 및 교수자·학습자 관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전통적 수업은 강의를 통해 먼저 지식을 습득한 후 과제를 수행하는 반면, 플립드 러닝은 학생들이 먼저 개인적·집단적 방식으로 자기 주도적 지식 습득 활동을 한 뒤, 강의 시간에는 이에 대한 토론과 적용을 하는 것이다.⁸⁹⁾ 예를 들면 대학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분단, 통일, 북한 관련 주제별로 교수자가 배부 혹은 안내하는 자료나 스스로 찾아낸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을 한 뒤, 강의 시간에는 개인별·집단별 과제를 수행하거나 토론을 통해 지식을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자료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자신의 삶이나 사회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분단 극복과 통일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통일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내러티브’를 활용해 대학생 스스로 진리를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교육과정이 교육목표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험의 조직, 학습경험의

89) 임진혁, “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인가”, 『서울교육』 제56권 제3호 통권216호, 2014, p. 24.

평가라는 위계적이고 순차적인 절차⁹⁰⁾를 가지고 있던 것과 대비된다. 실천적 내러티브 방식은 정해진 목표가 아니라 ‘달리는 과정 그 자체(to run the course)’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 있다고 본다.⁹¹⁾ 즉 통일은 ‘당위’나 ‘자명’한 진리로 배워 왔던 수동적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생들 스스로가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발견’적 진리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통일 문제와 관련한 이슈나 영상을 접한 뒤,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의 형태로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한다. 이후 개인별·집단별로 수행할 실천적 과제를 설정한 뒤, 자신이 설정한 실천적 과제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스스로 통일 문제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탐구해 나간다. 탐구를 마치면 이들은 자신의 실천적 과제 수행 결과를 그림이나 글, 이야기 등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⁹²⁾ 자신과 타인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서로 통일과 관련된 의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과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깊게 할 수 있다.

셋째, ‘열린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⁹³⁾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은 일반적으로 관련 텍스트를 토대로 토론 주제를 구성하고 탐구 공동체를 결속한 뒤 탐구와 토론을 실시하면서 이를 심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탐구공동체 활동은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필요로 하며, 구성원 간 참여 의지와 협력 및 규칙 준중이 중요하다.⁹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 교재나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관심을 갖거나 문제로 인식하는 토론 주제를 능동적으로 선정한다. 이후 탐구공동체를 결속해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탐구하고, 공동체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 나가면서 보다 다양한 상황으로 확장 심화한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탐구 공동체 활동은 통일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열린 대화와 의사소통의 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3) 일터 통일교육을 통한 민주적 소통과 회복

통일이라는 사회 변화가 가져 오는 영향은 가족이나 학교 뿐 아니라 일터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친다. 개인들은 공식적 사회화 과정으로서의 정규 교육을 마친 뒤, 각자 자

90) 박승배, 『교육과정학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03, pp. 83-98.

91) 도홍찬, “내러티브가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에 미치는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26호, 2006, p. 190.

92) 박세원, “학생 이해에 기초한 교과교육과정 통합 재구성 전략: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제24권, 제4호, 2013, p. 59; 66.

93) 박진환, “도덕·윤리과 교육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성찰”, 『윤리교육연구』제23집, 2010, pp. 81-82.

94) 박진환, “립맨의 탐구공동체 특징과 윤리교육”, 『탐구공동체교육』 제4집, 2004; 송석재, “탐구공동체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탐구공동체교육』 제4집, 2004; 이은주, “철학교육의 맥락에서 초등 도덕교육의 가능성 연구: 철학적 탐구공동체와 Kant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윤리연구』 제71호, 2008; 조성민,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탐구공동체”, 『탐구공동체교육』 제1집, 2001; 조성민,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도덕과 토론·논술 연계지도”, 『윤리철학교육』 제10집, 2008; 홍성호,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등 참조.

신의 일터를 찾아 그 곳에서 또 한 번의 사회화를 경험한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가치관과 태도를 갖춰 나가며,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다면 일터에서의 통일교육의 환경과 여건은 매우 부족하다. 일터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또한 직장을 벗어나 통일과 관련된 체험 활동 실시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일터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일터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통일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연관 지을 맥락 설정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일터에서의 통일교육은 구성원들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을 비롯해 학습자 주도의 과제 풀이 중심 집단 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다.⁹⁵⁾ 액션 러닝은 의학 전공자를 비롯해 기업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집단적인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는 소집단을 구성하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쓰게 한 뒤, 집단 전체가 이를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들을 분류해 해결책이나 결론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 등 일정한 이슈를 놓고, 그러한 이슈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포스트잇 등에 이를 기록한다. 이후 집단 전체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분류할 기준을 의논해 정한 뒤 해당 기준에 따라 의견들을 분류한다. 이후 집단 전체가 원인과 해결책들에 대해 토의한 뒤 이를 정리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문제 인식과 해결책과 관련한 서로의 생각이 공통적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일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터는 개인에게 경제적 소득과 더불어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등을 형성하는 장이지만, 현대 사회에 만연한 경쟁과 갈등, 소외와 상처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제 분쟁 치유 프로그램⁹⁶⁾이나 학교 폭력 문제⁹⁷⁾ 등에서 주목된 바 있다. 이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범죄는 단지 처벌 대상을 넘어 신체적·물질적·도의적 측면 모두에서 책임감이 필요한 문제로, 진정한 참회와 배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중시한다.⁹⁸⁾ 이를 통일교육

95) 김세곤, “‘소통’과 ‘성찰’을 돕는 협력학습의 기본, 액션러닝”, 『새교육』 통권724호, 2015, pp. 123-124.

96) F. Ashe, “From Paramilitaries to Peacemakers: The Gender Dynamics of Community-Based Restorative Justice in Northern Ireland”,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 no. 2, 2009.

97) 서정기,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에 적용하면, 남북한은 장기적인 분단으로 인한 폐해와 상처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이질감 등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과 형벌 자체는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화해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적·관용적 일터 문화와 관련 지어 민주적 소통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교육 역시 민주시민의식을 확립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서독 체제로의 통일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적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터 내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권위주의적 가치관이나 개인주의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일터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 일터 내에서의 적응과 친밀도를 높이게 되며, 이는 개인의 역량 발휘를 최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민주적·관용적 일터 문화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나오는 다른 존재, 즉 동료나 타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구성원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과 연계해 직장 단위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직장 체육 대회를 활용한 통일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4) 지역사회 통일교육 체계 확립

지역사회는 그 특성상 여타 생활영역에 비해 구성원들의 규모가 크고, 연령, 계층, 성별이 더 다양하며, 때로는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 극복을 위한 '탈냉전 문화'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냉전 시대의 적대적 감정과 배척 의식은 냉전적 사고와 문화로 이어져,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합의구조를 형성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 집단이 겪은 역사적 경험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기 위한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세대·계층·지역 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동포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 자체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다. 더불어서 개인 단위

98) J.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and De-Professionalization", *The Good Society* 13(1), 2004, pp. 28-31.

로는 대북인식과 시각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분단 극복과 통일의 중요성’,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공감하는 ‘중수준’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 대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오랜 분단과 이질화, 적대적 감정은 남한 내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성 성숙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통일 이후 이질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녀 온 북한 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기초로서 의미가 있다. 그 기본적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재사회화로서의 통합 교육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통일 국가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기본적 바탕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민주시민성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 존중은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 인권, 평화, 번영의 가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율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민적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인식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회통일교육 체계 확립 및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별로 특성화된 통일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다양한 기관·단체 간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세대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사회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세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통일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생애주기·연령(age)별·코호트(cohort)별·세대(generation)별 최적화된 맞춤형 평생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특화 사회통일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대학교 및 지자체와 연계해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통일을 대비한 세대별·지역별·직능별 통일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

IV.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관점에 기초해 우리나라 각 세대별 특성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전쟁이라는 폐허를 딛고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라는 역동적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각 세대는 성장기의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바라보는 인식을 정립해 왔다. 코호트 관점에 따른 다양한 세대 연구를 바

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각 세대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일정한 인식의 차이를 지니게 되며, 이는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도 드러나고 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대, 베이비부머, 민주화 세대, X세대, 그리고 디지털 세대 등이 지니고 있는 세대 가치에 대한 인식, 매체와 디지털 관련 인식, 사회적 관계 및 사회 구조 인식, 정치·국가 인식 속에 드러난 코호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각 세대는 세대 내의 공통점과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을 일정한 정도로 지니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통일에 관한 인식, 통일정책 인식, 대북인식, 남북관계와 주변국인식 특성을 정리했다. 이상을 기초로 코호트 관점에 따라 세대별 통일인식에 기초한 특성화 통일교육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통일교육 전략은 대략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삶과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추세를 경험하며 자라났다. 그리고 이들은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배경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이슈를 일상에서 접했지만, 동시에 2006년 이후의 반복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도 동시에 경험한 세대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의 ‘민족 동질성’이나 ‘통일의 당위성’ 위주의 통일교육으로는 접근 방식이나 효과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각 학교급 별로 적용 가능한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을 정리했다.

첫째, 유치원 통일교육에서는 언어·문자를 초월해 신체와 감성 중심의 정의적·행동적 수업 활동이 필요하며, Ice-Breaking, Spot, ICT 기법, 박수치기와 같은 신체 활동, Photo standing, Brain-storming 기법, 놀이·게임, 노래·울동 등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인식·관점채택·추론·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감수성·민감성·양심·자아존중·감정이입 등의 정의적 영역, 실천능력·통일의지·통일역량의 습관화를 통한 행동적 영역의 통합적 수업 전략을 제안했다. 셋째, 중학교 통일교육은 대남 도발이나 인권 등 부정적 대북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적 갈등 해결 접근, NIE 활동·협동학습·상상 질문 등 자기주도적 통일교육 전략,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통일교육 체험활동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난과 핵실험, 인권 이슈를 접하면서 진로·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국가·민족정체성과 연계한 열린 통일교육, 교과 외 통일교육 수업모형 개발, 집단 활동을 통한 긍정적 통일 미래상 제고를 위한 수업 기법으로 ONP 질문·VAVA Game·Metaphor·Key Learning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회통일교육은 더욱 다양한 출생 코호트와 세대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각 출생 코호트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사·문화적 상황에 따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당위성’ 중심의 통일교육 담론을 넘어 새로운 지향점과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식·기술 역량, 행위 역량, 시민성, 통일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사회통일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령별 세대 구분은 각 세대의

통일인식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개념적 편리성이 있으나, 통일인식 제고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가족·대학교·일터·지역사회 등 생활영역별 특성화 사회통일교육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가족 공동체 단위의 통일교육 전략으로는 대화학습, 비폭력 대화 모델, 하브루타 교육을 제시했다. 둘째, 탈냉전·탈이념 세대이자 민족 동질성과 통일의 당위성 인식이 취약하기 쉬운 대학생의 경우에는 ‘열린’ 통일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자기주도적인 플립드 러닝, 실천적 내러티브를 통한 발견적 통일 담론과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열린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통한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 등을 제시했다. 셋째,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일터 통일교육은 경쟁과 갈등, 소외와 상처를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화해와 회복을 통한 통일 프로그램, 관용과 민주시민성 함양, 액션 러닝 방식의 학습자 주도 집단학습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까지 존재하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략으로 탈냉전 문화 형성 교육, 상호 이해·관용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연계 통일교육,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회통일교육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세대 이해를 위해 시도된 코호트 구분이 자칫 획일적인 이념형으로 이어질 경우, 세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제한할 우려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식을 비롯한 다양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 간 뿐 아니라 때로는 세대 내의 차이나 갈등에서 근거한 것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세대 특성은 세대 간의 차이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일부 세대 간에 가치의 연합이나 동맹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제안한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통일교육 대상의 특성에 보다 적합성을 지니는 통일교육 실시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의지 제고와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석학 통일인문학을 말한다』, 서울: 선인, 2012.
- _____, 『청소년을 위한 통일인문학』, 서울: 알렘, 2015.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별책1], 2015.
- _____,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6], 2015.
- _____,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7], 2015.
- _____,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15], 2015.
- _____,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18], 2015.
- _____,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19], 2015.
- _____, 『통합 1-2 학년군 우리나라 ①』, 서울: 지학사, 2013.
- _____, 『통합 1-2 학년군 우리나라 ②』, 서울: 지학사, 2013.
- 구인회, 『경제위기와 청소년 발달-가족의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집문당, 2003.
- 김유선·한귀영, 『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3. 09. 12.
- 김종문, 『도덕교육을 위한 학생활동 중심의 대화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2013.
- 김학성·조대엽·이우영·진행남·정영철·윤영철·구갑우, 『대북정책에 대한 소통증진 방안연구』,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09.
- 민경배·박수호, 『융합 사회의 인간, 인간관계: 온라인 자아 정체성과 사회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09-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박경숙, 『노령화와 세대』,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04-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박세원, 『존재의 성장과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2009.
- 박승배, 『교육과정학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03.
- 박찬석, 『통일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3.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5.
- _____,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6.
- 윤현진, 『도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CRC2006-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이근철·오기성,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 2000.
-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12.
- 이동수·이유리·이소영·이선우,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예비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6.

- 이호영·김희연·김석호·이윤석,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5-56, 2015.
- 이호영·조성은·오주현·김석호·이윤석,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2-12, 2012.
- 조난심 외,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조성은·이호영·손상영·이원태·강홍렬·한은영·김사혁·김희연·이시직·홍성욱·이종관·남영,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5-55, 2015.
- 조성은·한은영·장근영·김선희,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자아의 정체성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 13-51, 2013.
- 조용기, 『포괄적 문제해결학습』, 대구: 교우사, 2015.
- 조찬래·이상환·주미영, 『가치변화에 따른 투표행태: 1990년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2003.
- 추병완 외,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6.
- _____,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교육원, 2002.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사, 1990.
- 황인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론』, 서울: 울력, 2014.
- Aronson, E., *The social animal*(9th ed.), New York: Worth Publishers, 2004.
- Bell, D.,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3.
- Clandin, J.,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염지숙 외 4명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2015.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Teacher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 of experien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8.
- Coser, L. A. & B. Rosenberg,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6.
- Galtung, J., 이재봉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서울: 들녘, 2000.
- Glenn, N. D., *Cohort Analysis*, Sage Publications, 1977.
- Huntington, S. P., *Post-Industrial Politics: How Benign Will It Be?*, Comparative Politics 6, 1974.
- Inglehart, R.,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R., 정성호 역, 『조용한 혁명』, 서울: 종로서적, 1983.
- _____,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Riley, M. W., M. Johnson, & A. Foner, *Aging and Society Vol. 3, A Sociology of Age*

- Stratific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 Rosenberg, M. B.,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A Puddle Dancer Press, 2003, 캐서린 한 역, 『비폭력 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서울: 바오출판사, 2004.
- Turner, J. H. & Beeghley, L., *The Emergence of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Dorsey Press, 1981.
- Zehr, H.,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erald Press, 1990,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춘천: KAP, 2010.

(2) 논문

- 김국현, “반편견 통일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51호, 2002.
- _____, “한국 유교의 평화사상과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43호, 2000.
- 김기환·윤상오·조주은, “디지털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2009년 여름호.
- 김상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2011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자료집, 2011.
- 김성민 외,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분석”, 『철학연구』 제92집, 철학연구회, 2011.
- _____, “인문학적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제59집, 범한철학회, 2010.
- 김세곤, “‘소통’과 ‘성찰’을 돕는 협력학습의 기본, 액션러닝”, 『새교육』 통권724호, 2015.
- 김위정·김왕배,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 2007.
- 김은지, “베이비붐세대의 일상: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과 일, 현실과 정책과제』,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2010.
- 김종근, “한국인의 분단 트라우마와 구술 치유”, 과학기술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2012. 11. 1-3.
- 도홍찬, “내러티브가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에 미치는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26호, 2006.
-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세원, “학생 이해에 기초한 교과교육과정 통합 재구성 전략: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제24권 제4호, 2013.
- 박순진, “코호트의 크기와 범죄율의 변화”,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 박재흥,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1999 가을호.
- _____,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추계 특별 심포지움 발표 자료집, 2002.
- _____,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제37집 3호, 2003.
- _____,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2001.
- _____,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1995 가을호.

- _____,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8,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 박재홍·한상진, “정보 격차의 현실과 대안적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 18집 제1호, 2000.
- 박진환, “도덕·윤리와 교육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성찰”, 『윤리교육연구』 제23집, 2010.
- _____, “도덕적 판단력 향상을 위한 철학적 탐구 공동체 적용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20집, 2008.
- 박진환, “립맨의 탐구공동체 특징과 윤리교육”, 『탐구공동체교육』 제4집, 2004.
- 박태정,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2013.
- 변종현,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초등도덕교육』 제39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2.
- 서정기,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송석재, “탐구공동체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탐구공동체교육』 제4집, 2004.
- 안지선·백유선·김신경,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2011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자료집, 2011.
- 윤건영, “도덕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 23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7.
-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제12권 4호, 2006.
- 이은아·박상복, “Rosenberg의 비폭력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배척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10권 1호,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07.
- 이은주, “철학교육의 맥락에서 초등 도덕교육의 가능성 연구: 철학적 탐구공동체와 Kant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윤리연구』 제71호, 2008.
- 임진혁, “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인가”, 『서울교육』 제56권 제3호 통권216호, 2014.
- 전성수, “질문이 있는 수업, 하브루타”, 『서울교육』 제56권 제3호 통권216호, 2014.
-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임희섭 교수 정년퇴임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2.
- 조성민,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탐구공동체”, 『탐구공동체교육』 제1집, 2001.
- _____,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도덕과 토론·논술 연계지도”, 『윤리철학교육』 제10집, 2008.
- 조혜선,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추병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홍성호,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 Ashe, F., “From Paramilitaries to Peacemakers: The Gender Dynamics of Community-Based Restorative Justice in Northern Ireland”,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 no. 2, 2009.
- Bengtson, V. L., N. E. Cutler, D. J. Mangen, and V. W. Marshall,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VNR, 1985.
- Braithwaite, J., "Restorative Justice and De-Professionalization", *The Good Society* 13(1), 2004.
- Esler, A., "The Truest Community: Social Generations as Collective Mentalitie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2(spring), 1984.
- Inglehart, R.,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1971.
- Kertzer, D. I.,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983.
- Mannheim, K.,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1928).
- Marshall, V. W., "Generations, Age Groups and Cohorts: Conceptual Distinctions", *Canadian Journal on Aging* 2(2), 1983.
- Nash, L. L., "Concepts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107, 1978.
- Rintala, M., "Generations: Political Generations"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6*, Macmillan & Free Press, 1974.
- Rosow, I., "what is a Cohort and Why?", *Human Development* 21, 1978.
- Tappan M. & L. Brown, "Stories told and lessons learned: Toward a narrative approach to moral education", *Harvard Education Review*, 59, 1989.

